

아테로스, 무선랜 칩셋 솔루션 KT에 단독 공급키로

이주연

무선랜 칩셋 개발업체인 아테로스 커뮤니케이션은 지난 3월 1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국내 통신사업자인 KT와 사업제휴 조인식을 갖고, KT에 802.11a/g 듀얼밴드 무선랜 칩 제품들을 독점 공급키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아테로스가 이번 계약으로 KT에 공급하게 될 칩셋 솔루션은 AR5002AP-2X, AR5004X, AR5005UX 3종으로, 이들은 각각 KT의 듀얼밴드 무선랜 액세스 포인트, PC 카드, USB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되어 기업, 학교 및 네스팟 환경에 적용된다. 또한 이 제품에는 "Atheros Super AG" 로고가 부착된다.

아테로스의 802.11a/g 칩은 802.11b 제품과도 호환이 가능하며, 기존 2.4GHz 대역이 3채널인데 반해 5GHz는 22개 채널을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 엔터테인먼트, VoIP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핫스팟 무선 환경에서 기존보

다 최고 7배 더 많은 사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AR5000 칩셋 시리즈는 AES (Advanced Engine Standard) 암호화 엔진을 내장하여 보안 표준인 802.11i를 아무런 성능 저하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아테로스측은 덧붙였다.

아테로스의 Craig Barratt 사장은 "아테로스의 듀얼밴드 802.11a/g 기술은 대규모 사업장은 물론 대용량 고품질 영상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용 무선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KT 한원식 마케팅기획 상무는 "현재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동성(Mobility), 개인성(Personality), 광대역(Broadband)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기존 2.4GHz에서 5GHz로 광대역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채널과 더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선택은 유비쿼터스의 속도 업그레이드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